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江原日報	03면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관철”	1
江原日報	03면	"석회석 폐광지 특별법 제정 강원 교통 보상"	1
江原日報	온라인	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계...	2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 국가 계획 반영 촉구”	3
 연합뉴스		강원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 국가계획에 반영하라"	4
강원도민일보	03면	"태백 바이오매스 수소사업 중단 대책 마련"	5
 춘천MBC	온라인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6
스포츠서울	온라인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	7
로컬경기	온라인	강원도의회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 “산림액...	8
스포츠서울	온라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32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9
신한뉴스	온라인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32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	10
 KBS 춘천	온라인	김시성 “강원문화재단, 무단 투자로 재산 손실”	11
 연합뉴스		"강원문화재단, ELS 투기로 20억 손해...업무상 배임 확신" ...	12
스포츠서울	온라인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	13
 m 明星日報	온라인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	14
케이엠뉴스	온라인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마지막 현지시찰 추진	15
중부뉴스통	온라인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마지막 현지시찰 추진	16
江原日報	04면	20년째 사랑으로 버무리는 김장김치	17
강원도민일보	02면	"세계 청소년 스포츠로 성장하는 계기되길"	18
江原日報	01면	'20대 청년' 사라지는 강원 10년간 4만7천명 수도권행	19
江原日報	02면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	20
강원도민일보	05면	고성 축산농가 렘피스킨병 추가 발생... 도내 6번째	20
강원도민일보	04면	강특법 '농지·산림' 위임 조례안 이달 작성 완료	21
강원도민일보	02면	강릉과학산단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세운다	21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GTX-B 춘천 연장 연내 확정 기대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조선왕조실록·의궤, 실질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2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평창 세계기록유산 거점 발돋움하길	24
江原日報	19면	[사설] 줄고 있는 ‘사랑의 연탄’, 각계의 온정 절실하다	25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 촉구**

“춘천 서면~신북 우회도로 관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의회 앞에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 “석회석 폐광지 특별법 제정 강원 고통 보상”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을 별도로 제정해 환경 피해를 감수해 온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고통을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7일 개최한 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최재석(동해) 도의원은 “강원자치도에서 우리나라 시멘트 70%를 생산하면서 산하는 민생창이가 되고,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악취에 시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은 217억원 기본재산 중 50억원을 도의 허가없이 파생상품에 투자해 지난 3일까지 약 20억원의 평가손해 상태”라며 “관계 법령을 위배한 투자 행

강원자치도의회 5분 자유발언서 최재석 도의원 주장  
 문화재단 투자 문제·엑스포부지 활용 등 제언 이어져

태에 대한 도 차원의 감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재단 직원들의 대거 퇴사는 동종업계 최저 처우 때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부지 사후 활용방안을 제안한 김용복(고성) 농림수산위원장은 “사무처가 사용한 잼버리 건물에 산림환경국 일부 부서와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설악산 달미봉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강원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단편적 재건 사업을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원특별법 특례에 국립공원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엄윤순(인제) 의원은 “미시령 터널의 경우 현 추세로는 MRG(최소수익보장)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총손실액이 4,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을 제안했다. ‘태백시 규제

자유특구 해제’에 대해 발언한 이한영(태백) 의원은 “태백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 사업의 중단으로 규제자유특구조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이 나서 태백시민과 철암 주민에 대해 고민하고 만나달라”고 했다.

권혁열 의장은 “민생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며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족했던 점을 찾아내고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시성 의원 발언에 대해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파생상품 투자액 만기는 내년 7월까지고 직원 퇴사는 지난 6월 취임 이후 한 건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현정기자

2023 11 07 ( )

## 江原日報

## 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하라”

7일 도의회 본회의 후 현관 앞에서 촉구 건의문 낭독  
 “국도.국지도건설은 생활권도로로 중요성 매우 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마친후 의회현관 앞에서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를 마친후 의회현관 앞에서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박승선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 반영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7일 현관 앞에서 건의문을 발표하고 올 12월께 수립될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춘천~홍천 국도 확장과 서면~신북 우회도로가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국도 5호선 강원지역 구간 중 제천~홍천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고, 춘천~화천 구간은 3차로로 개량됐지만 춘천~홍천 구간만 수십년째 2차선으로 남아 있다”며 “강원과 충청.경상을 잇는 영서권 핵심 도로인 춘천~홍천 구간은 일상적인 교통불편을 넘어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은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 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순환형 네트워크의 핵심도로”라며 “지역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건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특히 “광역고속교통망과 강원지역 주민생활권을 직접 연결하는 국도.국지도건설은 시.군 연결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생활권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무척이나 크다”고 설명했다.

대표로 건의문을 낭독한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도의회에서 선도적으로 건의할 만큼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의원 등 정치권에서 후속 건의가 잇따를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 11 07 ( )

춘천MBC

## 강원도의회 "국도 5호선 춘천-홍천 확장" 건의

강원도의회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과

춘천시 서면~신북 우회도로’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합니다.

도의회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도 5호선의 강원도 구간 가운데

제천~홍천 구간은 4차선,

춘천~화천 구간은 3차로로 개선됐지만

춘천~홍천 구간만 수십 년째 2차선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춘천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은

수도권과 춘천·화천·양구 등 강원북부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핵심 도로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화길

mbc05@chmbc.co.kr

2023 11 07 ( )



## 강원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 국가 계획 반영 촉구”

강원도의회가 오늘(7일)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건의문에서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은 영서권 핵심 도로지만, 수십 년째 왕복 2차로로 남아 있어 교통 불편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청 동내면 이전과 학곡·다원지구 도시 개발로 환경 변화가 크다는, 춘천~홍천 국도 확장과 춘천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의 국가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최현서 hschoi@kbs.co.kr

2023 11 07 ( )

연합뉴스

## 강원도의회 "춘천~홍천 국도 확장, 국가계획에 반영하라"



건의문 발표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원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수십 년째 왕복 2차로 도로로 남아 있는 강원도 국도 5호선 춘천~홍천 구간 확장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7일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발표한 건의문에서 "춘천~홍천 구간은 강원과 충청·경상을 잇는 영서권 핵심 도로로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교통 불편을 넘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청이 춘천시 동내면으로 이전하고, 학곡지구와 다원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2019년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고도 최종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또한 제2경춘국도 개통 이후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역 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춘천시 서면~신북 우회도로 건설도 제6차 계획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온 박기영(춘천3) 안전건설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해당 의제를 지역의 총선공약으로 채택하고, 다 함께 힘을 모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anys@yna.co.kr

# 강원도민일보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 2차 정례회가 7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 39일간 열린다. 서영

## “태백 바이오매스 수소사업 중단 대책 마련”

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 강조  
이한영 “규제자유특구도 취소 위기”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태백의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사업이 중단(본지 10월 20일자 1면 등)된 것에 대해 “사업 수습에만 몰두하지 말고, 태백 시민의 심정을 들어 달라”고 당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한영(태백) 의원은 7일 제324회 정례회 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핵심사업의 중단으로 규제자유특구조차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특구 지역인 태백 철암동을 언급하며 “2000년대비 인구가 약 60%가 급감하는 등 폐광지에서도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받을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겠느냐”며 “우리가 해야 한다.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대책을 촉구했다.

원미희(비례) 의원은 “설악동 주민들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설악동 B·C지구 목우재삼거리에서 출발하는 달마봉탐방로



개방”이라며 “도가 나서서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 등 기관 협의를 통해 탐방로 조정을 해달라”고 말했다.

엄윤순(인제) 의원은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전국 최고 수준이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총 손실액이 4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며 미시령터널의 국도 전환을 촉구했다.

최재석(동해) 의원은 “동해 무릉별유천지는 30만평이나 되는 폐광지를 관광지로 바꾸는 대역사지만 정부의 지원은 없었다. 지원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시멘트 생산 등으로) 그동안 환경피해를 감수한 도민들의 고통

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용복(고성) 의원은 고성강원세계산림엑스포부지내 산림환경국제2기 관 설립과 강원도 산림수련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에 준치시킨 솔방울전망대를 독일의 검은숲 전망대처럼 하이킹, 숲길 걷기, 숲속 놀이터 등 시설을 설치하고, 야영부지에 캠핑데크 등을 설치하자”고 강조했다.

김시성(속초) 의원은 “강원문화재단이 위험투자자산인 신한은행과 농협의 ELS 파생상품에 투기해 지난 3일 기준 장부상 손해액이 약 20억 4000만원”이라며 “정기예금을 주식, 펀드 등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없었다”고 재단 전 대표의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조치를 주장했다.

권혁열 도의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대형산불이 재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위축 등 민생문제 해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부족했던 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의 직후 도의원들은 의회현관 앞에서 국도5호선 춘천~홍천 확장공사 서면~신북우회도로 건설을 정부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설화 lofi@kado.net

춘천MBC

2023 11 07 ( )

##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내년 예산안 심사

강원도의회 제324회 정례회가

오늘(7일) 오후 개회해

다음 달 15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강원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8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합니다.

또 오는 22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

다음 달 4일부터 13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가 열립니다.

이밖에 접경지역 개발촉진 지원특위와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위 등

각종 특별위원회도 열립니다.

강화길

mbc05@chmbc.co.kr

2023 11 07 ( )

## 스포츠서울

##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 “산림엑스포 부지를 대한민국 산 림수도로”

일부 부서,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 이전 제2산림 기관 설립  
잰버리장 내 '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 설치



김용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고성)이 11월7일(화)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림엑스포 부지 내 산림환경국 제2기관 설립 및 산림수련원 설치를 제안하였다.

김용복 위원장은 ‘산림엑스포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무처와 도청직원들의 노력으로 흥행과 성공개최로 이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엑스포의 성공과 함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유지 될 수 있게 부지의 사후관리 및 산림관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현재 도차원에서 향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무처가 사용한 잰버리 건물에 산림환경국 일부 부서와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이전시켜 강릉 제2청사 같은 산림 관련 제2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 제2기관 외에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의 설치 필요를 강조하며, 잰버리 숙박동의 리모델링, 야영부지 내 데크 및 글램핑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산림 체험시설을 준공하여 엑스포의 유지를 이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끝으로 제2기관과 산림수련원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62조의 가치를 가진 자치도 산림을 엑스포 부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산림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 11 07 ( )

# 강원도의회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5분 자유 발언 “산림엑스포 부지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잼버리장 내 ‘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 설치

로컬경기



▲ 강원도의회 김용복 농림수산위원장, 5분 자유발언 “산림엑스포 부지를 대한민국 산림수도로”

[로컬경기=로컬경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용복 위원장(고성)이 11월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림엑스포 부지 내 산림환경국 제2기관 설립 및 산림수련원 설치를 제안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산림엑스포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사무처와 도청직원들의 노력으로 흥행과 성공개최로 이어졌다’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엑스포의 성공과 함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유지 될 수 있게 부지사후관리 및 산림관련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현재 도차원에서 향후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무처가 사용한 잼버리 건물에 산림환경국 일부 부서와 산림과학연구원, 자연환경연구공원을 이전시켜 강릉 제2청사 같은 산림 관련 제2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또한 산림 제2기관 외에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수련원’의 설치 필요를 강조하며, 잼버리 숙박동의 리모델링, 야영부지 내 데크 및 글램핑 시설을 설치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산림체험시설을 준공하여 엑스포의 유지를 이어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용복 위원장은 끝으로 제2기관과 산림수련원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장 실용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강조하며, “62초의 가치를 가진 자치도 산림을 엑스포 부지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산림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변했다.

2023 11 07 ( )

## 스포츠서울

##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32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설악산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11월 7일(화)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는 2012년 설악동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속초시가 매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등에 요구하고 있다”며 “강원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단편적 재건 사업을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특자도 특례에 많은 산림 관련 규제가 해제되었으나 국립공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근 신흥사의 반대 명분도 해소되었고, 달마봉 일대가 유전자원보호구역도 아닌 만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3 11 07 ( )

##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32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설악산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

고태우 기자



▲ 원미희 강원특별자치도 의원, 324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 “설악산 달마봉,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의 법정탐방로 지정을 촉구했다.

원미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설악산 달마봉 등산로는 2012년 설악동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에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속초시가 매년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등에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강원자치도 대표 관광지인 설악산 입구에 폐허가 된 건물들이 방치된 상태에서 단편적 재건 사업을 한다면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의원은 “특자도 특례에 많은 산림 관련 규제가 해제됐으나 국립공원 관련 내용은 빠져있다.”며 “문화재 관람료 폐지로 인근 신흥사의 반대 명분도 해소됐고, 달마봉 일대가 유전자원보호구역도 아닌 만큼 협의를 통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기관이 선제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달라 요구했다.

KBS 춘천

2023 11 07 ( )

## 김시성 “강원문화재단, 무단 투자로 재산 손실”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원은 오늘(7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문화재단이 기본 재산 50억 원을 강원도 허가 없이 추가연계증권에 투자해 평가손실액이 20억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는 관계 법령을 어긴 것이라며 감사도 차원의 감사나 법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성은

2023 11 07 ( )

연합뉴스

## "강원문화재단, ELS 투기로 20억 손해...업무상 배임 확신" 지적

김시성 도의원, 부적절한 자산관리 행태.열악한 근무 여건 비판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문화재단의 부적절한 자산관리 행태를 지적하는 쓴소리가 나왔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국민의힘 김시성(숙초2) 도의원은 7일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재산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용도변경 등을 위해서는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함에도 재단이 이를 무시하고 정기예금 217억원 중 50억원을 위험 투자자산으로 여겨지는 추가연계증권(ELS) 파생상품에 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3일 기준으로 장부상 손해액이 약 20억4천만원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며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재단은 기본재산 운용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심의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루어보건대 대표가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상 배임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일들을 저질러놓고 재단 전 대표는 임기도 채우지 않고 중도 사퇴로 책임을 무마해버렸다"며 "도지사께서 감사를 실시해 법적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3년 동안 재단 실무진의 퇴사율이 급증한 점을 들어 근무 여건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많은 직원이 동종업계인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으로 이직한 건 최저수준에 가까운 처우 때문"이라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 승진 적체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성이 있는 직원도 채용·보강해 재단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conanys@yna.co.kr

2023 11 07 ( )

**스포츠서울****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MRG 협약에 따른 4,000억 원 이상의 도비 손실액 우려,

건전재정을 위한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의지 피력

453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지연 문제도 꼬집어



[스포츠서울 |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은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과 453번 지방도 공사 완공을 촉구했다.

엄윤순 의원은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 원이 민간투자자로부터 이루어짐에 따라 MRG 협약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협약 당시 터미널의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수입액 결손분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현재까지 미시령터널 수입액 결손분 보전에 따른 누적 도비 손실액은 671억 원이며, 현 추세로는 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총손실액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윤순 의원은 공익처분이나 협약 재협상 등으로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미시령터널의 국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453번 지방도는 확·포장 공사가 공사 기간 6년 중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의 공정률이 45.67%밖에 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완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윤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튼실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전환과 공사 촉구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

2023 11 07 ( )



##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한

453번 지방도 확·포장 공사 지연 문제도 꼬집어

김정현 기자



▲ 엄윤순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인제) 5분 자유발언,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 및 453번 지방도 공사 촉구'에 관한 제언'

[명성일보=김정현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엄윤순 의원(인제)은 11월 7일 제32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시령터널 국도 전환과 453번 지방도 공사 완공을 촉구했다.

엄윤순 의원은 미시령터널 건설 당시 총사업비 1,090억 원 중 965억 원이 민간투자자로 이루어짐에 따라 MRG 협약으로 인해 사업 시행자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데, 협약 당시 터널의 예상 통행량을 극성수기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게 잡아 수입액 결손분 지출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2023년 현재까지 미시령터널 수입액 결손분 보전에 따른 누적 도비 손실액은 671억 원이며, 현 추세로는 MRG 협약이 끝나는 2036년까지 누적 총손실액이 4,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엄윤순 의원은 공익처분이나 협약 재협상 등으로 해결을 시도해 오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미시령터널의 국도 전환을 강력히 제안했다.

453번 지방도는 확·포장 공사가 공사 기간 6년 중 5년이 다 되어가는 현시점의 공정률이 45.67%밖에 되지 않음을 꼬집고, 완공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엄윤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위한 튼실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도 전환과 공사 촉구 등의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3 11 07 ( )

##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마지막 현지지찰 추진

초고령사회 진입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요 현안 논의

김영진 기자 dkkyj0120@hanmail.net



(케이엠뉴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11월 8일 2023년의 마지막 현지지찰을 추진한다.

이번 현지지찰은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재활병원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노인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 이용현황 및 이용률 제고 방안 등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센터가 위치한 지역과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열띤 의정활동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이였다 이번 현지지찰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보건미디어 분야 주요 현안을 챙겨볼 필요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사회문화위원회는 어르신, 저출생, 아동, 여성, 보건, 의료, 관광, 문화, 체육 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빠짐없이 모든 분야를 챙겨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3 11 07 ( )

## 사회문화위원회 2023년 마지막 현지시찰 추진

초고령사회 진입한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재활치료를 위한 주요 현안 논의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도의회청사전경(사진=강원도의회)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제324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11월 8일 2023년의 마지막 현지시찰을 추진한다.

이번 현지시찰은 춘천에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재활병원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이뤄지며 재활병원에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노인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활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는 센터를 이용하는 도민 이용현황 및 이용률 제고 방안 등과,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던 센터가 위치한 지역과의 예산 배분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재웅 사회문화위원장은 “열띤 의정활동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2023년이였다 이번 현지시찰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의 보건미디어 분야 주요 현안을 챙겨볼 필요가 있어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으며 “사회문화위원회는 어르신, 저출생, 아동, 여성, 보건, 의료, 관광, 문화, 체육 등 많은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빠짐없이 모든 분야를 챙겨보고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강원=중부뉴스통신]김석희 기자 desk@jungbunews.com



◇한국여성농업인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송연옥)에서 마련한 김장 담그기 체험 및 나눔행사가 7일 춘천시 신북읍 샘밭장터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강원대 유학생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 20년째 사랑으로 버무리는 김장김치

**한여농강원도연합회 나눔 행사 직접 농사 지어 1,200포기 담가 취약계층 주민들에 전달 예정**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된 가운데 여성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나눔의 장이 열렸다.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는 7일 춘천 샘밭장터 일원에서 김장 담그기 체험 및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해 나눔과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상징이 되고 있다.

이날 김장담그기 행사에는 송연옥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장과 회원들뿐 아니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정호·윤길로 강원자치도의원 등도 참여해 함께 김치를 버무렸다. 여성농업인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자원봉사에 나서 나눔에 사용될 김치 1,200포기를 담갔다. 배추뿐 아니라 김치에 사용되는 속재료와 양념 모두 여성농업인들이 지역에서 직접 재배,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모자와 장갑,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버무리며 여성농업인들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도내 농업 현안

과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지사는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자리에 참가하게 되어 기쁘다”며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연옥 한국여성농업인강원도연합회장은 “회원들이 1년간 소중하게 가꾼 농작물을 다 함께 버무리고 이웃들의 겨울나기에 보탬이 되는 소중한 먹거리로 만든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행사를 계속 이어가는 등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kwnews.co.kr

2023 11 08 ( )

# 강원도민일보

02



‘2024 강원대회 범업 캠페인-나에게 청소년올림픽이란!’ 본지 주관 캠페인에서 (사진 왼쪽부터) 심오섭 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 이관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배우 박재민 홍보대사가 대회장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서영

## “세계 청소년 스포츠로 성장하는 계기되길”



### 강원도민과 함께 범업

나에게 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심 “동계스포츠 거점지 도약 기대”  
 이 “함께 빛나도록 대회 준비 최선”  
 박 “성인올림픽 전초전 겸 놀이터”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범업이 본지 주관의 2024강원대회 범업 캠페인-(나에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과 더불어 확산하고 있다. 2024 강원대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각계각층의 메시지를 릴레이로 실는다.

### ■심오섭 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

2024강원대회 개최지인 강릉을 지역구로 둔 심오섭 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지원 특위 위원장은 2024강원대회를 “동계스포츠 거점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나에게,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란’ 질문에 이같이 적으며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 개최 지역이 동계스포츠의 거점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 ■이관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관표 2024 조직위 기획본부장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대해 ‘Shine Together’이라고 밝혔다. Shine Together (함께 빛나자)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슬로건이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스포츠의 즐거움을 깨닫고 화합과 경쟁을 통해 한 단계 성장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관표 기획본부장은 “조직위 신발끈을 다 시뮬하는 시간을 갖고, 전 세계 청소년과 강원 청소년, 강원특별자치도가 모두 빛날 수 있도록 올림픽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배우 박재민 홍보대사

스노보드 선수 출신인 박재민 홍보대사는 ‘나에게, 청소년 올림픽이란’이라는 질문에 ‘놀이터’라며 간단명료하게 답했다. 그는 “이번 대회가 성인 올림픽을 준비하는 전초전이기에 때문에 치열하겠지만, 재미있는 추억도 만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서 놀이터와 같다”고 말했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지칭되는 그는 이번 대회에서도 홍보대사뿐만 아니라 스노보드 종목의 아시아 심판으로, 사회자로, 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이설화·심예섭·김덕형 ▶영상 kado.net

江原日報

2023 11 08 ( )

01

# ‘20대 청년’ 사라지는 강원 10년간 4만7천명 수도권行

## 젊은층 이탈 가속화 강원자치도 인구 153만명 붕괴

### 다른 연령층 순유입과 대조... 한은 “취업·학업 주원인”

최근 10년간 강원특별자치도 20대 주민 4만7,000여명이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으로 순유출됐다. 젊은층의 수도권 이탈 등의 여파로 강원자치도 인구는 153만명이 붕괴됐다.

본보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강원자치도 내 20대 인구 4만4,825명이 순유출됐다. 경남·북, 전북 등 비수도권의 20대는 강원도로 옮겨왔지만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향한 20대가 4만7,727명에 달해 순유출 규모를 키웠다. 서울이 2만8,38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만6,835명, 인천시 2,505명 순이었다. 이 같은 순유출 규모는 올 10월 말 기준 강원자치도 20대 인구 16만4,471명의 29%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20대를 제외

한 전 연령층에서 지난 10년간 강원도 내 인구 유입이 유출보다 많다는 점이다. 50대 인구는 강원자치도로 2만6,368명이 순유입돼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은 유입을 기록했다. 60대 1만9,449명, 40대 1만1,752명 등 순을 보였다. 30대 역시 7,092명 순유입을 기록했다.

이처럼 유독 20대만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것은 취업과 학업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산업 등과 연계한 도내 대학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강원자치도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지역 간 인구가동과 지역경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이동 요인에 고용률과 경제성장률이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과 비수

도권 간의 임금 고용률과 성장률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의 비수도권 유출도 심화됐다는 것이다. 대학 진학도 20대 이동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또 문화 및 의료서비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커진 점도 수도권 집종의 요인으로 짚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젊은층이 양질의 일자리와 학업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떠나면서 강원자치도 인구는 2011년 4월 이후 12년6개월 만인 지난달 153만명이 붕괴됐다. 올 10월 기준 강원자치도 인구(주민등록 기준)는 152만9,500명으로 집계됐다.

이원학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도 모자라는 현 상황에서 강원 지역 20대 인구의 수도권 쏠림은 예견된 것”이라며 “여기에 군부대 통폐합으로 인한 전입인구 감소까지 더해 20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규호·이무현기자

2023 11 08 ( )

# 江原日報

02

##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 직급 '4→3급' 상향

(인구 10만명 미만)

행정안전부는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18개 시군 가운데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모두 주민등록인구 10만 미만이어서 향후 입법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일부 개정령안은 지난달 '제5회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4급으로 동일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3급으로 상향한다.

2024년에는 인구 5만~10만 시군구(동해 속초 홍천 삼척)를, 2025년에는 인구 5만 미만의 시·군·구(횡성 철원 평창 태백 영월 정선 인제 고성 양양 화천 양구)를 상향한다. 또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원, 시·군·구는 40만원 상향한다.

이에 따라 시·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늘어난다.

지자체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19일)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이무현기자

2023 11 08 ( )

# 강원도민일보

05

## 고성 축산농가 렘피스킨병 추가 발생...도내 6번째

고성지역만 두번째, 67두 살처분

지난 6일 밤 고성의 한 축산농가에서 렘피스킨(LSD)병이 추가로 발생했다. 강원도내에서 6번째, 고성에서 두번째 발병이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최초로 렘피스킨병이 발생한 이후 강원특자도에서는 양구와 횡성, 고성, 철원 등 6곳의 한우농가에서 잇따라 발병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고성 축산농가에서 발병한 한우두마리는 지난 6일 밤 9시 30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당국은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

30분부터 이 축산농가의 한우 67두에 대해 살처분 및 매몰을 실시했다.

한우 축산농가 A씨는 "지난 3일 축사의 모든 소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데 갑자기 번식우 2두에서 렘피스킨이 확진돼 참담하다"고 말했다. 추가확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6800여 한우농가 소 28만마리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을 지난 5일 완료했다. 도 렘피스킨 방역대책본부는 "렘피스킨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기간인 3주 이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방제를 주문했다. 지산

# 강원도민일보

2023 11 08 ( )

04

## 강특별 '농지·산림' 위임 조례안 이달 작성 완료

###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요건 등

속보=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도 조례안을 이달까지 최종 작성해 도의회에 보고하기로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원도와 도의회, 강원연구원은 오는 21일 강원특별법 위임조례제·개정 TF 전체회의(본지 8월 7일자 3면)를 연다. 이날 위임조례전담팀은 특별법

위임 조례안 17건(제정 12건·개정 5건) 가운데 환경과 농지, 산림 등 주민과 밀접한 특별법 위임 조례안 6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산림 1건, 농지 2건, 환경 3건이다.

산림 분야 위임 조례안(산림이용진흥지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가칭)은 강원특별법의 산림 분야 위임 조문 8개를 포괄한다. 해당 조례안의 핵심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요건 위임 조항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특별

법과 도 조례에 명시된 요건을 갖춘 지역에 지정된다. 조례안에선 지구 지정 세부 요건으로 산지를 50%이상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 농림 분야 조례안 3건은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요건 △농업진흥지역 지증 특례 등을, 환경 분야 3건은 △환경보전협력기금의 설치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등으로 특별법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게 된다.

특별법 위임 조례안은 내년 2월 도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내년 3월을 목표로 제·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6월 8일부터 시행된다. 김덕형

# 강원도민일보

2023 11 08 ( )

02

## 강릉과학산단에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 세운다

### 정부 공모 선정 450억원 투입 제조공정 표준화·검증 시설 등 국가산단 최종 지정 기반 마련

국내외 표준화된 천연물 소재와 데이터를 통합 지원하는 시설이 강릉에 들어선다. 강릉시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에 선정되면서 천연물 국가산업단지 최종 지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는 평가다.

김진태 도시사와 김홍규 강릉시장은 7일 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사와 김시장은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조성 사업'에 강릉시가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식품과 화장품 등에 활용되는

천연물 소재의 표준화 거점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 지역은 강릉시 사천면 강릉과학산업단지로, 2027년까지 450억원(국비 150억·지방비 300억)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8264㎡) 제조공정 표준화 시설과 분석·검증 시설, 별관(세척·건조·보관 시설) 등이 들어선다. 본관에 천연물 소재 제조공정 표준화 및 분석·검증 시설, 별관에 세척·제조·보관 시설을 갖춘다. 강원테크노파크를 주관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가 조성한다.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WBST), KIST 강릉분원, 강원 ICT 융합연구원 등이 운영에 참여한다.

강원도는 천연물 소재가 세계적인 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공모 선정에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공모에는 강원도를 포함해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가 도전장을 냈는데 도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현장평가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홍규 강릉시장 등은 시설 유치 당위성을 적극 피력했고, 김명선 행정부지사가 천연물 국가산단과의 연계성 등을 직접 발표, 최고점을 받아 사업을 따냈다. 이로써 강원도는 지난 5월 근중산업거점단지(춘천)에 이어 농식품부 핵심전략사업을 연이어 따내는 쾌거를 이뤘다.

강원도는 천연물 표준화 허브를 마중물로 삼아 천연물 기회발전특구 지정, 강릉시 천연물 국가산업단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지사는 "강릉시가 지난 3월 천연물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는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어 국가산업단지로 최종 지정되는 데 한걸음 더 다가갔다"고 했다. 김홍규 시장은 "천연물 국가산업단지와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사업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계기로 여러 바이오 산업에서 강원도가 상당히 앞설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김덕형

▶관련기사 10면

## 강원도민일보

2023 11 08 ( )

/ 19

## GTX-B 춘천 연장 연내 확정 기대

-윤대통령 사업 공식화, 철도 정책 반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춘천 연장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GTX-B는 춘천을 수도권과 동일 생활권으로 묶어 지역 발전을 견인할 호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윤대통령의 강원대선 공약인 춘천 연장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큼니다. 노선을 운영하면 춘천뿐만 아니라 홍천·화천·양구 등 영서북부권도 교통망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공약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철도 연장이 희망 고문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실망도 배가할 것입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선 국가철도망계획에 조기 반영해 정부 정책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윤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대통령은 지난 6일 GTX-A 열차 내에서 진행된 광역교통 국민간담회를 통해 GTX-A는 평택, B는 춘천, C는 천안·아산까지 확장할 계획이라며, 노선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강원과 충청을 묶어 30분 안에 출퇴근하고, 전체로는 1시간 이내에 중부이북지역을 다닐 수 있게 하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구상은 구체적입니다. 경기 북부·춘천권 까지 많

은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부지 공급이 활성화하며, 주택 수요 분산으로 집값도 안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존 GTX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춘천 연장이 이뤄지면 수도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당초 인천대입구~남양주마석 구간으로 예정됐던 노선이 이어지면, 춘천권역은 광역수도권화에 진입할 교통여건을 갖게 됩니다.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환승 없이 55분, 용산역까지 63분, 인천송도까지 90분 만에 도착합니다.

관건은 추진 속도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진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일정과 사업계획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 구간은 B/C(비용편익분석)가 1.0 이상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타당성 면에서도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은 물론, 내년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정해 조기 추진할 수 있도록 가시적 결과가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계획이 연내 확정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한 지역 숙원사업으로 머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江原日報

2023 11 08 ( )

/ 19

## 조선왕조실록·의궤, 실질적 활용방안을 찾아야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이하 실록과 의궤)’의 실물이 드디어 9일 고향 평창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 천신만고의 노력 끝에 정부로부터 운영 예산(15억4,200만원)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진행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옛 왕조실록·의궤박물관)’으로의 오대산사고본 문화재 이관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이다. 서울을 중심에 둔 논리와 문화재 보호법 등에 가로막혀 일본으로부터 반환을 받고도 실록과 의궤의 복제본

(영인본)만을 품고 있어야 했던 평창 ‘왕조실록·의궤박물관’의 대변인인 셈이다. 이날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실록과 의궤 환

지본처(還至本處-제자리 돌아옴) 기념 행사는 전통 의식이 지닌 품위와 격식을 갖추고 우리 문화재 귀향(歸鄉)의 의미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일제가 실록과 의궤를 도쿄대학으로 가져간 것은 한국을 영원히 지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였다. 한민족 정신 수호의 핵심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러나 관동대지진 때 대부분이 소실됐고 불행 중 다행으로 대출돼 화재를 면한 것을 되찾아 왔다. 환수위원회 관계자들이 무수히 일본으로 건너가 기울인 노력은 눈물겨웠다. 월정사 등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제자리찾기 운동은 실록과 의궤가 일제에 의해 약탈된 지 93년 만인 2006년 들불처럼 일어났

다. 민간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1965년 체결된 한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주권이나 청구권이 박탈된 정부를 민간이 사실상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 결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역 문화재가 원래 있던 곳을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중앙 중심의 문화는 도시 집중의 병폐와 획일적 문화를 양산해 품격 있는 문화국가로의 성장을 방해한다. 문화의 분권과 다양화는 지방 문화의 격을 향상시키고 활성화

함으로써 중앙과 지역을 상생하게 만든다.

실록과 의궤의 실물이 고향 평창으로 온 것을 계기로 지방의 문화는 더욱 창대하게 꽃피어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9일부터 11일까지 ‘환지본처’ 대대적 기념행사  
“문화콘텐츠화 전략·지역 축제 연계 등으로  
청소년들이 역사의식 기질 수 있도록 해야”

것은 실록과 의궤를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즉, 문화콘텐츠화 전략, 지역축제 연계, VR·AR 기술을 이용한 체험 콘텐츠 개발 방안, 오대산사고의 활용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역사는 기억하는 대로 움직인다. 또 역사는 미래이며 생명의 뿌리이고 내일을 보는 오늘의 진실인 것이다. 청소년들이 실록과 의궤를 관람하면서 역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보관처는 하나의 훈련장이 돼야 마땅하며 문화 강국의 힘을 세계 인류에 홍보해야 하는 장(場)이어야 한다. 청소년 교육은 시청각을 겸한 현장성인 것이다. 현장에서의 시청각 교육이 청소년의 감성과 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강원도민일보

2023 11 08 ( )

/ 19

## 평창 세계기록유산 거점 발돋움하길

-실록·의궤 오대산 품으로, 신설 국가문헌보존관 서둘러야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강제 반출됐던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과 왕실의궤가 각계 노력으로 오는 11일 평창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개관과 동시에 선보이게 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1913년 일본으로 반출됐고, 조선왕실의궤는 1922년 일본으로 빼돌렸던 것인데 원래 있던 자리인 평창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일본으로 반출된 조선왕조실록 오대산 사고본은 1923년 관동대지진 화재로 무려 714책이 소실되고 말았기에 탄식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국내로 이전 반환된 뒤에도 줄곧 서울에 보존되고 있었습니다. 강원지역사회에서 즐기게 환수를 촉구한 결과 평창의 품에 안기게 된 점은 성과이고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더욱이 2019년 월정사에서 조선왕조실록·의궤박물관을 건립하고도 원본을 보존 전시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는데, 이 역시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 조성으로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 산하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도 본격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가문헌보존관은 2018 평창동계 올림픽 유산 활용사업 일환으로 2019년 3월 도·국립중앙도서관·평창동계 올림픽조직위 협약을 시작으로 추진

돼 2021년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당선작을 냈지만 아직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대관령면에 자리잡은 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를 활용해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당초 완공 시점은 2024년으로 알려졌는데 2027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전통시대 기록유산이라면 국가문헌보존관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해 첨단 복원 체제를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문헌보존 전문 시설로 구상됐습니다. 단순히 수장고 시설에 그치지 않겠다는 계획으로 출발했고, 부지는 14만㎡에 달합니다. 평창이 기록문화기반으로 한 산업화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니다.

관광콘텐츠에 기여하는 전시 관람 기능을 넘어 세계기록유산의 거점을 자산업화로 가려면 국가차원의 지원과 협력은 계속돼야 합니다. 평창의 잠재력이 산업으로 확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문헌보존관 착공 시점을 앞당겨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국책연구소 신설 확대가 필요합니다. 유관기업 입주와 창업 효과까지 내려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구체화해야 가능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의궤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는 기쁨의 장이자 기록문화 산업화를 향하는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 江原日報

2023 11 08 ( )

/ 19

## 줄고 있는 '사랑의 연탄', 각계의 온정 절실하다

추위가 시작됐다. 연탄은행의 나눔 활동이 펼쳐지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후원이 급감하고 연탄가격까지 상승해 어려움이 크다. 춘천연탄은행은 2021년 연탄 1장당 800원이던 후원비를 지난해 850원, 올해 880원으로 인상했다. 원주 밥상공동체 역시 올해 동절기부터 후원비를 장당 800원에서 850원으로 올렸다. 이로 인해 연탄은행으로 들어오는 연탄이 줄어들고 있어 충분한 양의 연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0월 동절기 사업 재개일 기준 원주 밥상공동체에 약정된 후원 연탄 수는 지난해 6만9,300장에서 올해 6만3,700장으로 8.3% 감소했다. 설상가상으로 등유 값마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난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5일 기준 도내 주유소 평균 등유가격은 ㄹ당 1,408.68원이었다. 1년 전(1,590.34원)보다 내렸지만 평년에 비해 500원 이상 높다.

7일부터 한파가 강원지역을 덮치고 있다. 본격적인 난방 철로 접어들었다. 취약계층의 걱정이 태산이다. 한두 푼이 아쉬운 그들에겐 연탄 구입 비용마저 버겁기만 하다.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없다면 올 겨울 추위와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온기를 나눠야 할 때이지만 여의치 않은 환경이

다. 코로나19 이후 닥친 경기 침체로 후원의 손길이 예전 같지 않다. 올해 연탄 쿠폰은 전국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가구 4만6,000여곳에만 지급된다. 난방비 급등에 신음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규모다. 어느 때보다 관심과 지원이 간절하지만 현재까지 연탄 기부는 예년에 못 미치고 있다.

경기 부진에 물가 상승까지 겹친 여파로 연탄 사용 가구 등 에너지 취약계층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소외된 가구에도 골고루 연탄을 나눌 수 있도록 지역별로 복지 네트워크를 촘촘히 가동해야 할 것이다. 연탄 사용 가구는 대부분 경제활동이 곤란한 저소득층이다. 홀몸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 가구다. 한 해 겨울을 나기 위해선 최소 1,000장 정도의 연탄이 필요하다고 한다. 빈곤층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난방비다. 커피 한 잔 값이면 연탄 4~5장을 기부할 수 있다. 하루를 따뜻하게 떨 수 있는 양이다. 우리 사회는 힘들수록 나눔을 실천해 온 저력을 지니고 있다.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어려운 때를 함께 헤쳐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관·단체와 기업, 개인들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